다양한 IT동아리 중에서 멋쟁이사자처럼 대학 11기를 선택하고 지원하시게 된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멋쟁이사자처럼의 모토인 ‘내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실현한다’가 제가 되고 싶은 개발자의 목표와 같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나갈 때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멋사에 합격하게 된다면 여름방학에 진행될 아이디어톤, 해커톤 등을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참여하며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다수와 함께 고민한 아이디어들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 목표를 이룬다면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쌓여 머릿속에서 상상만으로 그려내던 생각들을 웹으로 구현해내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멋쟁이 사자처럼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공부부터, 실전적인 프로젝트 경험까지 할 수 있는 11년 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대학생들만의 동아리가 아니라 멋쟁이사자처럼 기업에서부터 비롯된 커리큘럼을 통해 프론트엔드 분야의 전문성을 늘리고 싶습니다

프론트엔드 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사용자와 컴퓨터의 쌍방향 소통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web3 세계에서도 결국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프론트엔드 분야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발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프론트엔드 개발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다른 분야에 대한 문제를 제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어우러져 나오는 팀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연결된 분야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팀원들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고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멋사를 통해 프론트엔드의 길을 닦고 스스로 백엔드 개발 공부를 병행하여 함께 소통하는 가치를 아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개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용가능한 언어 기재)

전역 후 1년간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개발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게 3월 초라 제대로 된 프로젝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멋사를 들어오기 전 개발에 대한 생각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활코딩의 이고잉님의 강의 중 html 강의를 완강하였고,

개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개발 공부의 방향성을 위한 로드맵, html 강의를 수강하고 사이트를 만든 경험을 노션에다가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파일은 아니므로 노션 사이트를 아래 링크로 첨부하겠습니다.

https://twisty-seeder-6b7.notion.site/a58b4812049d403abe6e3da06fba6eb7

* 1.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첨부해 주세요.
  2.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JavaScript가 어떤 분야의 개발자가 되든 마스터해야할 중요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공고에 적혀 있지 않지만 REACT도 기회가 된다면 배우고 싶습니다.